

환경 생각하는 시간

28일 꾸꾸꾸 꾸꾸 영화제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 등 2편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

‘꾸꾸꾸 꾸꾸 생명 평화 영화제’ 다섯번째 행사가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생태일기 모임 꾸꾸꾸 꾸꾸가 진행하는 이번 영화제에서 함께 보는 영화는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2014·25분)와 ‘강정 오이군’(2015·6분)이다.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는 세계 인권과 저항 운동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아일랜드 공영방송국 RTE의 ‘세계는 지금’ 연작 시리즈 ‘한국’편으로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강정 오이군’은 2015년 강정 영상평화학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참가비는 없으며 개인컵을 가져오면 따뜻한 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강정마을에 보낼 손 편지나 함께 만들어 물물교환 행사도 이어진다.

초여름 길목 ‘龍兒’에 물들다

〈용아·시인 박용철〉

광산구·박용철기념사업회 주관 30일 ‘용아문학제’



전국 시민참여 백일장대회 11년만에 학술심포지엄 수완호수공원 김수철 콘서트 캘리그라피 등 행사 풍성

심그러운 초여름 길목, 용아(龍兒) 박용철을 만난다!

광산이 낳은 남도의 대표 시인 박용철(1904~1938)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린다. 광주시 광산구가 주최하고 광산문화원과 용아박용철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4회 용아문학제가 30일 개최된다.

소촌동 송정중앙초등, 수완지구 장덕도서관과 호수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문학제는 한국 현대 시단에 큰 족적을 남긴 용아의 시 정신을 기리고 생애를 조명할 계획이다. 박용철은 1930년 김영랑(1903~1950)과 ‘시문학’을 창간 정지용, 신성정 등과 함께 예술의 순수성을 추구했다. 그의 대표작 ‘떠나는 배’는 암울했던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특유의 서정과 정갈한 언어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문학제는 지난 2004년 용아 탄생 100주년기념 학술대회 이후 11년 만에 심포지엄이 열리고 용아의 대표작 ‘나도야 간다’를 노래했던 김수철 밴드가 참가할 예정이다.

첫 행사는 30일(오전 10시) 전국백일장대회가 테이프를 끊는다. 용아생가 옆 송정중앙초등 운동장에서 열리는 백일장대회는 작년에 이어 글짓기 부문과 그림그리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일반부(대학 포함)가 참가 대상이다. 회람자는 이메일(gsc3377@hanmail.net) 또는 팩스(943-3390)로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오후 2시 수완지구 장덕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개최되는 학술심포지엄은 용아의 삶과 문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길 고려대 명예교수, 유승우 인천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오문석 조선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오후 3시 수완호수 공원일원에서는 광산구 작은도서관 연합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이 펼쳐진다. ‘톡톡 튀는 나만의 독서기방 만들기’, ‘알록달록 예쁜 팬시 우드마커스’, ‘시로 쓰는 머그컵 만들기’, ‘개성만점 책 저금통 만들기’, ‘책 읽는 벤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예정돼 있다.

행사의 대미는 용아의 시를 곡으로 만들어 노래했던 가수 김수철과 함께 하는 콘서트다. 오후 7시 수완 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는 ‘김수철 밴드와 함께 하는 詩가 흐르는 콘서트’가 열린다. 노래와 함께 시낭송, 김수철 밴드 팬사인회도 열려 초여름밤의 서정을 수놓을 예정이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수완 호수공원 일대를 배경으로 용아시 캘리그라피, 걸개시화



가수 김수철

전, 시문학갤러리, 용아포토존 등 시인 박용철을 매개로 한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이현선 광산문화원장은 “용아문학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상생의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용아생가 일원이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941-3377.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자

Table listing winners of the Honam Arts Festival in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instrumental music, vocal music, and dance. Categories include 실용음악, <심사위원>, <보컬 중등부>, <보컬 고등부>, <심사위원>, <보컬 중등부>, <보컬 고등부>, <심사위원>, <보컬 중등부>, <보컬 고등부>, <심사위원>, <보컬 중등부>, <보컬 고등부>, <심사위원>, <보컬 중등부>, <보컬 고등부>.

‘5월의 광주 그리고...’ 강수훈 토크 콘서트

내일 광산문화회관

광주 광산구와 ‘순소 기획단’은 문화가 있는 날인 27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회관에서 ‘광산하우스콘서트4-강수훈 순소’ 행사를 진행한다.

‘2015 광산오월문화제’(5월18~28일)의 일환으로 기획된 순소(SOON SHOW)는 스토리박스와 순소기획단 대표인 강수훈씨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다.

음악과 토크가 결합된 형식으로 강 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 관객들을 만났다.

이번 순소의 주제는 ‘5월의 광주 그리고 앞으로의 오월’이다.



토크 초대 손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가했고, 현재 광주학교 교장인 송갑석씨와 민행배 광산구청장이자, 팍재즈 프로젝트 그룹인 ‘메이킹(Mayking)’이 음악을 맡는다. 관람료는 감동 후불제로, 모금액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쓰인다. 문의 062-960-825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미술관 ‘문화 있는 날’

연극 공연·큐레이터 토크 등

광주시립미술관 행사 풍성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27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미술관 본관과 상록전시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7시에는 본관에서 극단 얼·아리의 연극 퍼포먼스 ‘아빠도 안아주고 싶었다’가 30분간 진행되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뮤지엄 토크가 열린다.

앞서 오후 5시 상록전시관에서는 김진화 작가의 초대 개인전 ‘꿈꾸는 창’ 전시실 명화와 작가와의 대화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작가 배병우의 ‘섬과 숲 사이’, ‘아빠의 청춘’ 등을 오후 8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13. /김경민기자kki@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최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원주택.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매매 2억.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010)3722-3076

특허방수. IPALGO.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010-6603-0405